

일본의 인생 85년 비전¹⁾ :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리더디자인

- 일본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생 85년 시대가 도래하는 동시에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이 다양화되는 속에서 평균수명이 50~60세이었던 전후시기에 형성된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강구하게 되었음

- 2008년 12월에 후생노동성대신이 전문가를 모집하여 '인생 85년비전간담회'를 창설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보고서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설계를 다시 디자인 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1. 검토배경

□ 「인생 85년 시대」의 도래

- 일본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생 85년 시대」가 도래하는 동시에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이 다양화되는 속에서 평균수명이 50~60세이었던 전후시기에 형성된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강구하게 되었음
- 현재의 일본과 다른 문화·가치관·생활양식 등도 참고하면서 향후 일본인의 생활, 근로, 인생설계에 대한 이미지를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대해 폭 넓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 2008년 12월에 후생노동성대신이 전문가 18명을 모집하여 '인생 85년 비전간담회'를 창설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음
- 보고서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설계를 다시 디자인 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 특히 일·생활·학습·휴식 등에 있어 '생애 현역의 생활 만들기'를 수행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2. 충실한 인생을 위한 기초 만들기

- 「인생 85년 시대」를 활력이 넘치고 충실하게 보내는 데 불가결한 기초 만들기의 관점에서, 건강 확보와 여러 가지 학습, 그리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소득확보,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제언함

□ 생애에 걸친 건강 확보

- 충실한 인생을 보내는 데, 자신의 건강을 생애에 걸쳐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문제임
- 질환 중에는 식습관과 운동습관 같은 생활습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1)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 人生85年 ビジョン 懇談會 報告書, 2008' 을 참고하여 작성함

- 편식하지 않은 식사,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등 기본적 생활습관을 습득하고 이러한 습관을 지속시키는 생활 습관 형성이 출발점이 됨
- 직장에서의 과중한 노동의 완화 및 정신보건 대책의 추진과 스포츠를 국민에게 더욱 더 확대 시키는 대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국민의 자조노력에 의한 건강 만들기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체계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확실히 구축해야 함
- 인생의 최종 장을 모든 사람이 존엄을 가지고 품위 있는 죽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의료보험, 개호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한층 더 정비해야 함
- 사회 또는 국가에서 충분한 케어를 제공하는 일을 강구해야 함
- 완화케어의 희망자에 비해 담당자가 적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완화케어의 담당인재 육성의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

□ 전생애에 걸친 학습과 능력개발

- 인생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 자기 즐거움과 직업능력의 재개발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에서 학습을 주체적으로 행하며, 스스로 다양한 경험 축적을 계속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함
- 기업에서는 지금부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스스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장기고용을 지속시키는 직업능력의 착실한 향상을 그려나가는 역할이 기대됨
-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노동을 하면서 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것을 쉽게 하도록 근무시간 면에서의 배려, 종업원의 경력에 대하여 상담체제의 충실 등의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음
- 행정에서는 이러한 기업조직에서의 지원조치의 충실과 광범위한 교육훈련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리고 민 · 관의 연결 하에 노동자의 직업 능력과 교육훈련의 성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의 쌍방이 출입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배움과 능력개발을 구하는 노동자에 대해 실천적인 사회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임

□ 죽음과 마주한 보다 좋은 생활을 위한 Curriculum 만들기

- 생활의 변화에 따라 학습의 큰 기둥이 되는 “죽음을 마주한 보다 좋은 생활의 Curriculum”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
- 고속경제성장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최근 생로병사에 대한 자각 부족이나 생사관의 결여, 자기스스로 받고 싶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욕의 희박함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희망자가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함께 “죽음과 마주하는 보다 좋은 Curriculum”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립적인 생활의 한계와 사람 수명의 유한성을 배우는 것이 가능해짐
- 이러한 학습이 사람들간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붕괴 위기에 있는 가족, 지역과 사회의 재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됨

□ 문화를 즐기는 환경 구축

- 문화와 교양은 사람의 마음을 풍부해지게 하고, 긴 인생의 과정에서 퇴출과 고독, 우수에 직면하는 시기에 이러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줌
- 변화로 가득 찬 자연환경에서 문화적 전통에서도 다양한 자연이 엮어내는 바, 화가(일본 고유의 정형시)나 회화 등 다양한 작품 속에서 계절의 변화가 묘사되고 있음
-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가운데 잊혀져가는 경향이 있는 자연과의 일체가 되는 전통을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에 대해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과 지역에 있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함
- 이러한 대응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 발전에 대한 힘을 지향한 일본에 있어 등한시하게 된 마음의 풍부함을 육성하고, 매력있는 생활 방식을 넓히면, 국가의 문화력을 향상시켜 세계에의 발전에 연결되도록 고려해야 함

□ 고령기를 중심으로 한 소득확보, 경제적 안정

-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노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조적인 사고방식의 원칙을 포함하면서도 세대내·세대간 불공평의 시정에 유의하면서, 사회전체에 부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현역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근로방식을 선별하게 하고 일을 통해서 필요한 소득을 획득해 나가면서 계획적인 자산형성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고 스스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된다는 자각을 갖는 것이 필요함
-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간병에 즈음하여 취업을 계속 희망하는 사람들이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와 한번 이직을 한 여성이 희망에 대응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의 실현, 증가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취업지원에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 등을 확실히 구축해나아가야 함
- 고령기에 있어 소득확보, 경제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야만 할 모양과 그것의 실현방책에 대하여 국민적여론을 탐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3. 생활방식 · 노동방식의 재설계

- 생활방식과 노동방식을 둘러싼 오늘날의 과제에 대하여 직업 경력, 즉 직업경험을 통하여 능력을 형성해 가는 시간적 개념과 생활방식 · 근로방식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역사도 의식해 나가면서 제언함

□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자기 만들기

-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활습관·경험 등을 구체화 하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사회인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 체험을 늘려 나가면서 스스로가 목표로 장래의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아동·중 고교생의 발달단계에 대응한 경력 교육의 충실, 인턴십 등 다양한 직장체험기 회의 제공 등을 관계자들의 협력 하에 더욱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아동들이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스스로가 타인의 지원에 의해서 성장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이후의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대 처의 적극적 추진이 기대되고 있음
- 노동관계법제 등 사회에 나올 때에 필요한 법제도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제공에 대해서도 사회인의 기초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더욱 대처가 필요함

□ 학교에서 직업까지의 원활한 이행

-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담당할 젊은이들의 고용·생활 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젊은이의 희망을 실현하고 본인의 생활설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관점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젊은이에게 생활에서의 활력 있는 이행을 지원하는 일과 함께 안정적인 취업을 희망하지만 프리터 등에 머물러 있는 젊은이의 정규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프리터에 대해서는 실업에 있어 매우 세밀한 취직 지원, 실천적인 직업훈련과 훈련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 가는 동시에 이직을 방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 기업에 있어서는 새롭게 졸업하는 대학생들의 일괄채용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고, 신입사원 채용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응모기회의 확대 와중장기적인 시점에 입각한 계획적인 인재육성에 힘써야 함
- 이러한 노력은 격차의 확대와 고정화를 방지하면서 사회 지원의 손길을 증가시키고, 「인 생 85년 시대」의 국가 기반을 강화해나가는 것으로서 관계기관, 단체의 연결 하에 강력 히 진행되어야 함

□ 근로전성기의 장기휴가

- 「인생 85년시대」의 직장인은 직업경력의 단계마다 충전과 자성, 방향 전환을 위한 준비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40대의 시기는 많은 기업에서 관리직로의 승진시기와 맞물리고, 일이 능숙해지는 한편 가정책임이 증가하고,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해 나가는 인생을 둘러싼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임. 이러한 시기에, 좀 더 긴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직장에서의 복귀 후 넓은 시야를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좀 더 많은 심신의 전환은 인생을 숨이 차지 않으면서 달려 나가는 것이 지속되도록 하는 충전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야 함
- 쇠퇴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의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의 교육훈련 휴가를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분야의 일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시행하고 원활한 노동 이동을 실현해 가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짐

□ 언제라도 노동이 가능한 사회 만들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희망에 대응하여 근로를 지속하게 하는 “생애현역사회”의 실현은 노동하는 사람의 생활기반이 되는 소득을 시작하게 하고 활력 있는 건강을 만들어가면서 고령화의 가운데 있는 현역 세대의 사회보장부담의 완화, 인구감소에 있어서 노동력의 확보 등에 투자해야 함
- 청년시기부터 계획적으로 스스로 투자를 행하는 것에서 축적을 형성하며 긴 인생을 통해서 필요한 공급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됨
- 일률적인 정년제가 아닌 직업생활에서부터 은퇴시기를 근로하는 사람 한사람이 선택가능하게 하는 제도만들기가 기대됨
- 강하게 존재하는 연공서열적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한 연령단계마다의 분절적 사고방식을 가능한 완화시키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 직업인생의 각 단계에 있어서 개개인의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육아·간병·자기개발·지역 활동 등의 생활시간과 장소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균형이 잡히고 인간적 리듬이 있는 근로방식과 생활방식을 실현해 가는 것이 필요함
- 노동자세대의 과반수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방식과 자녀육성 지원 등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남녀의 고정적인 역할분담 의식도 여전히 남아있음
- 또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곤란하고 급속한 저출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과 고령자 등의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람 있고 충실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건강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시간의 확보,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생활방식, 근로방식의 선택이 가능한 사회 만들기 등이 과제가 되고 이러한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자주적 대처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체에 의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시간 노동 등의 특징으로 결부된 종래의 남성정직원의 근로방식의 모델을 재검토하면서, 다양한 선별이 가능하고 유연성이 높은 근로방식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차세대 육성 지원에도 투자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향한 서비스의 존재방식의 재고찰**

- 연중휴무의 24시간 영업의 편의점, 패밀리 레스토랑, 소품종 소구운송과 지정시간 배달 등, 소비자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이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서비스의 확대는 이용편의성 추구의 대체라고 하는 과제를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던지는 것임
- 노동인구의 감소가 전망되는바 귀중한 노동력을 마모하지 않으면서 유효하게 활용해 갈 필요가 있고, 기업 측에서는 영업시간과 서비스 제공의 존재방식의 검토가 필요

□ **개성이 충만한 근로방식의 구축**

- 취업자에 차지하고 있는 고용자의 비율은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예를들면, 세금과 사회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담당자가 되므로 근로인력들은 스스로가 어느 정도 공조공과를 지불해 가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인으로서 자립심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 기업이 종업원의 개성 발휘와 근로방식을 중시해가는 것, 직업인으로서의 생활방식·근로방식에 대한 사회전체를 평가하는 것, 행정과 경제계가 창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 농림수산업에의 전직과 신입입직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 등을 통하여 개성이 충만하고 다양한 근로방식과 생활방식의 실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당연함

4. 지역사회에 있어 공조와 교류

- 「인생 85년 시대」에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희망에 따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 의미 있게 연결하면서 타인으로부터의 승인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불가결함
- 이 의미에서 타인과의 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 있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동하며 서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교류를 촉진해 가는 것이 과제임

□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재생**

-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가운데 일찍이 지역사회 연결의 중심이 되었던 농업종사자와 상점주 등의 자영업주, 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사람의 연결이 희박해지고 있어, 직업인으로서 자립심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 지역의 인재육성기능 등도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아동들의 인간관계를 둘러싼 문제행동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독거자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사람과의 유대를 재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지역에서의 교류가 진행된다면, 혈연에서 조부모와 손자, 지역에서 노인과 아동, 각기 상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풍이 태어나는 것도 기대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사람들과의 유대의 재생을 위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한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의 존재방식의 고찰 등도 포함된 대처가 필요함

□ 세대 간 교류의 무대가 되는 Public과 Private의 중간 영역의 확보

- 연공서열의 의식이 강하고 다양한 제도와 연령계층에서 횡적으로 구분 짓는 일이 많은 바, 흥미와 관심에 따라 종적으로 구분되며 세대를 초월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와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세대는 달라도 같은 흥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교류가 나타나며 그것이 자극이 될 때 연령에 상관없는 상호 교류도 생겨남
- 이러한 공통의 가치관에 기반한 그룹 교류의 계기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일이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는 중에 들르는 극장, 영화관, 살롱, 미술관, 콘서트홀, 스포츠 시설 등이 있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Public(근로시간, 극장)과 Private(생활시간, 가정)의 중간영역에 많이 있음
- 이러한 사회공간으로서의 중간영역을 확보해 가는 것이 교류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식하고 예를 들면 이러한 장소에서의 고령자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것들과 이러한 중간영역의 층만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는 것 등은 「인생 85년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 연금 생활자의 지방 및 해외로의 이주

- 비교적 주택 가격과 물가가 싼 지방도시에서의 생활에 매력을 느끼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에 대응해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이들 지방도시로의 이주를 충족시켜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방도시에서는 이주자를 위한 질 높은 개인서비스 수요가 창출되며 파생효과로서 고용기회가 창출되는 효과와 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젊은이들이 자기지역에서의 취업과 U턴 취업자의 증가가 기대됨
- 도시와 지방의 경제격차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의한 재분배를 통해서 시정해왔지만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이러한 재분배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은 곤란해지고 있음
- 「인생 85년 시대」의 절반에서 인생설계를 검토하고 주거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선택가능한 개성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며 타 지역에서의 이주자와 제2지역 주거자 등의 적극적인 수용에 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
- 젊은 시기부터 국제적인 활동을 경험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따뜻한 기후와 물가가 싼 해외에서의 생활에 매력을 느끼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하는 것도 고려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 개인의 요구에 답하는 고령기의 생활을 실현해 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음

5. 시사점

□ 지속적인 학습과 고용체계의 개선 및 세대 간의 교류 필요

-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
- 성별과 연령을 구별하지 않는 채용과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의 고용 시스템 구축
- 파트타임, 프리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활의 안정
- 문화와 예술 활동, 스포츠 등 공통의 관심으로 세대 간의 교류 구축
- 학교, 기업, 지역이 노인의 질환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케어에 참가하는 등 죽음을 마주 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생활 Curriculum 보급 필요

□ 여성의 능력 발휘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방식의 개선

- 일과 육아·학습 등이 양립하기 쉬운 유연한 근로방식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필요
-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처와 직업경력 단계마다 심신의 충실과 직업능력의 연마를 위한 체제 정비

□ 지역사회 정비 및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협동 관계 필요

- 예술, 문화, 스포츠 등 교류기회의 확대와 이러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비 필요
- 보육·교육, 환경 등 각 분야의 활동에 있어 다양한 세대의 주민 참여를 위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 간의 협동 관계 필요

정진욱(건강증진연구실 초빙연구위원)

문의(02-380-827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